

산림청, 올해의 모범 도시숲 6곳 선정



▲전남 광양 옥룡솔밭섬(산림청 제공)

부산·인천·포항 등 6곳 '2025년 모범 도시숲'으로 뽑혀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도시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2025년 모범 도시숲' 6곳을 선정했다. 이번 모범 도시숲 선정은 지난 7월 한 달간 전국의 도시숲, 마을숲, 경관숲, 학교숲, 가로수 등을 대상으로 27건이 접수됐으며, 전문가와 시민들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와 현장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총 6곳이 최종 올해의 모범 도시숲으로 선정됐다. 올해의 모범 도시숲은 ▲부산 어린이대공원 ▲부산 태종대유원지 ▲인천 송도센트럴파크 ▲강원 횡성 삼일공원 ▲전남 광

양 옥룡솔밭섬 ▲경북 포항 송도솔밭도시숲이다. 먼저 '부산 어린이대공원'은 저수지와 계곡 등 자연 지형을 보존한 자연형 도시숲으로, 성지곡 수원지·편백숲·무장애 길길·동물원 등 다양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다. 특히, 역사자원과 생태 자원의 활용성이 뛰어나다. '부산 태종대유원지'는 천혜의 해안 절경과 울창한 숲이 조화를 이루는 자연형 도시숲으로 자연풍경이 살아있어 시민들과 관광객 등 도시숲을 찾는 이용자들이 다채로운 산림경관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 '인천 송도센트럴파크'는 조성 후 안정적 관리로 다양한 식생이 정착한 대표적인 도시숲이다. 도심 내 녹음 제공, 열섬현상 완화, 소음 저감, 대기 정화 기능 등 도시숲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독특히 기여하고 있다. '강원 횡성 삼일공원'은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 주민들의 여가, 휴식, 심신단련 등 힐링 장소로 주목받고 있으며, 3·1절을 되새길 수 있는 역사문화적 가치 또한 높아 방문객들이 즐겨 찾고 있다.

'전남 광양 옥룡솔밭섬'은 산림·하천·습지가 연계된 입지로 생태적 다양성이 높다. 특히, 태풍 피해를 복구해 조성된 숲으로 역사적·교육적 의미가 크며 지역 공동체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북 포항 송도솔밭도시숲'은 1910년대 해안 방풍림을 기반으로 바다 경관과 숲이 어우러지도록 구성해 자연스러운 해양 풍경을 만들었다. 특히, 맨발 걷기, 유아숲체험원 등 다양한 체험 요소와 주민·기업 단체의 참여로 유지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관리주체 간 거버넌스가 매우 뛰어난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산림청은 '모범 도시숲 인증제도'를 통해 2022년 6개소, 2023년 11개소, 2024년 5개 등 현재 총 22개 도시숲을 인증했으며 5년 단위로 재인증 평가를 시행해 도시숲의 품질을 높이고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기철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이번에 새롭게 인증된 6개소의 모범 도시숲은 우리 주변에 우수하게 조성·관리되고 있는 도시숲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도시숲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국민들의 이용을 증진하고, 도시숲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plimes.com



▲제3차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기업 포럼(산림청 제공)

탄소 줄이는 숲...아시아 산림투자 위해 기업 맞손

제3차 아시아산림협력기구 기업 포럼 개최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서울 상암 중소기업DMCE타워에서 열린 '제3차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기업 포럼(FAAF)'에서 민간기업의 산림협력사업 참여 확대 방안을 주제로 기업, 학계, 국제기구, 회원국 대표단 등 120여 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 기업 포럼은 기업의 환경·사회·조직(ESG) 경영과 산림협력사업을 연계해 아시아지역의 기

후 대응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공식 출범했다. 이날 포럼은 아시아 산림투자자의 재조명, 탄소 감축부터 공동편익까지를 주제로 기조연설, 전문가 세션, 기업 사례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기조연설에서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리펄위(Pengyu LI) 중국 대표는 "전 세계 숲이 더 이상 탄소 저장원이 아니라 훼손으로 인한 배출원으로 변하고 있다며, 산림복원과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으로 기후위기를 늦추기 위해서는 민간의 기술과 자본이 결합된 공동행동을 촉구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와 몽골 10억그루 나무심기 기금관리처(Billion Tree Fund)가 자금 동원과 글로벌 기후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사막화 방지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양기관 간 협력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plimes.com

수원국유림관리소, '안전보건문화 확산 캠페인' 실시

산림청, 제19회 전국 숲해설 경연대회' 개최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10월 23일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현장에서 산림교육·치유 운영 업체와 시공·감리업체 등 산림법인을 대상으로 '안전보건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산림사업장 내 안전의식 제고와 가을철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련된

현장 중심 프로그램으로, 근로자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안내 홍보물을 배포하고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 안전장구류 착용 등 주요 안전수칙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또한 산림사업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안전사고 사례와 예방

요령을 공유하며, 참여자들이 스스로 안전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자율 안전문화 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양두영 주무관은 "산림사업장은 위험 요소가 많은 만큼 안전관리의 기반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산림법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문화 확산 활동과 예방 중심의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알면 '돈' 되는 산림분야 지식재산권 교육 참가 모집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최무열)은 10월 29일, 대전 KW컨벤션센터에서 '산림분야 지식재산권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산림분야 지식재산권의 활용과 보호를 통해 임업인

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특허 창출에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 ▲산림청 국유특허 사업을 준비 중인 임업업체 등이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전문 변리사가 ▲산림분야 지식재산권 창출전략과 보호, ▲특허

를 활용한 판매촉진 사례, ▲권리 침해, ▲국가직무발령 특허권 기술이전 사업화 전략 순으로 교육을 진행하며, 교육 종료 후 ▲전문가 상담도 신청할 수 있다. 안전아 기자
midal0210@naver.com

서부지방산림청, 유관기관과 산불진화 합동훈련 실시

유관기관 협력 통해 산불대응력 제고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혁)은 10월 24일 남원시와 함양군 경계에 위치한 지리산유아숲체험원 일원에서 남원시, 함양소방서와 함께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산불발생에 따른 산불현장통합합치위본부 설치·운영 및 산불진화전략 수립, 각 기관의 장점과 특성을 반영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점점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특히, 산불발생 시 유아숲체험원 등 대중이용시설에 대한 이용객 대피계획 점검 및 기관별 임무를 숙지하는 한편, 실제 기동훈련을 통해 산불진화전략을 보완하여 산불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이 상시화·대형화되고 있어, 산불로부

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

력을 통한 산불진화역량을 더욱 더 제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전아 기자
midal0210@naver.com



▲서부지방산림청 제공

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 「농장 4단계 소독」 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농장 진입로 생석회 도포 농장 진입로 폭 2m 이상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충분히 도포	농장 내부 매일 청소·소독 ※ 소독약은 용법용량의 권장 희석배수 준수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세척수·물(세척조)을 이용하여 신발(장화)에 붙은 유기물 제거 후 신발소독조 사용 ※ 신발소독조 소독약은 2~3일 간격 교체	축사 내부 매일 소독 축사 청소·소독 순서 ① 청소·세척 천장→벽→바닥 순 ② 건조 ③ 소독약 살포 천장→벽→바닥 순
- 1주일 간격 반복 도포, 비·눈 내린 후 즉시 재도포 - 도포된 생석회 위에 산성 소독제 살포 금지	- 농장 내부, 사료빈·퇴비사·출하대 주변 매일 청소·소독 - 야생조수류 유인 요소(사료·폐사·왕겨 등) 방지 금지	- 지정된 관리자 외 축사 출입 최대한 통제 - 축사 출입시 손 소독, 방역복·위생장갑·전용장화 착용	- 사람·가축에 직접적인 소독제 분사 금지 - 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물품소독 철저 및 외부 반출 금지

농장에서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만이 가축질병 피해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